

작지만 강하다...자동차 심장 '터보 엔진' 이 대세

성능·연비 향상에 배출가스 줄여
현대차·기아 터보 하이브리드
올 8월까지 판매 3배 이상 급증
절세 효과도...장착 더 늘어날 듯

일반 엔진보다 높은 출력을 발휘하면서도 배출가스가 줄어드는 '터보 엔진'의 인기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면서 터보 엔진을 장착하는 사례가 1년 새 4배나 증가하는 등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급 차량에 비해 성능과 연비는 향상되면서 세금도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터보 하이브리드 차량 인기는 갈수록 높아질 전망이다. 11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8월 현대차·기아의 터보 엔진 차량은 총 23만 239대가 판매돼 작년 같은 기간(16만 907대) 보

다 43.1% 늘었다. 그 중에서도 내연기관만 장착된 일반 터보 차량의 판매량은 18만 1072대가 판매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0% 증가한 반면, 터보 엔진이 장착된 하이브리드 차량은 4만 9167대가 팔리며 무려 336.7%나 급증했다. 지난해 8월 기준 기아의 쏘렌토 1개 차종에 불과했던 터보 하이브리드 차량은 올해 들어 늘었다. 현대차가 코나와 투싼, 싼타페에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했고, 기아 역시 쏘렌토에 이어 K8과 스포티지에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가하면서 총 6개 차종으로 증가했다. 가장 많이 팔린 차는 가장 먼저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했던 쏘렌토다. 쏘렌토 터보 하이브리드는 올해 1~8월 2만 2684대가 판매돼 작년 동기(1만 1260대)보다 2배 이상 많이 팔렸다. 투싼 터보 하이브리드는 1만 981대가 판매돼 내연기관 모델을 포함한 올해 투싼 전체 판매량(3만



기아 쏘렌토 하이브리드

6184대)의 30%를 차지했다. 이어 K8 터보 하이브리드 8469대, 싼타페 터보 하이브리드 4101대, 코나 터보 하이브리드 1569대 등 순이었다. 또 7월 말 출시된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는 약 한 달만에 1363대 판매를 기록했다.

이처럼 터보 하이브리드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난 것은 같은 차량 또는 동급의 차체에 기존보다 작은 배기량의 엔진을 장착하는 '엔진 다운사이징'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더 작은 배기량과 부품, 엔진으로도 대등한 힘을

발휘하는 터보 엔진을 적용하게 되면 자동차 무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엔진의 무게를 줄여 효율성을 높이고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엔진 배기량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자동차세의 특성상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실제 1.6 터보 엔진을 적용한 K8 하이브리드는 2.4 가솔린 엔진을 장착했던 이전 세대 모델(K7 하이브리드)보다 배기량이 33% 줄었다. 반면 주행 성능은 최고 출력 180마력(PS), 최대 토크 27.0kgf·m로 K7(최고 출력 159마력, 최대 토크 21.0kgf·m)보다 각각 13%, 29% 향상됐다. 여기에 K8 터보 하이브리드의 자동차세는 29만 820원으로, K7 하이브리드(61만 334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최근 출시되는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대부분 터보 엔진이 적용되는 추세"라며 "성능과 연비, 절세까지 삼박자를 갖춘 터보 하이브리드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벤츠, 중고차 이어 신차도 온라인 판매 시작

메르세데스 온라인 샵 이용
100만원 결제하면 차량 예약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공식 온라인 판매 채널인 '메르세데스 온라인 샵'에서 인증 중고차에 이어 신차 판매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메르세데스 온라인 샵은 벤츠코리아의 공식 딜러 11개사가 온라인으로 차량을 판매하는 마켓플레이스(중계시장) 형태로, 지난달 오픈과 함께 인증 중고차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벤츠코리아는 내년부터는 서비스 상품도 온라인으로 판매함으로써 제품과 서비스를 아우르는 종합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메르세데스 온라인 샵

메르세데스 온라인 샵에서는 모델, 바디 타입, 색상, 옵션, 가격 등의 다양한 조건을 설정해 원하는 차량을 검색하고 주문할 수 있으며, '지금 주문하기' 기능을 통해 100만원의 예약금을 결제하면 차량을 즉시 예약할 수도 있다. 벤츠코리아는 온라인 신차 판매 개시를 기념해 새로운 옵션으로 구성된 모델을 온라인 샵에서만 선공개할 예정이다. 해당 모델은 일정 시간 뒤 오프라인 전시장에서도 판매된다. 벤츠코리아는 향후 온라인 샵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전용 모델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상국 벤츠 코리아 세일즈 부문 총괄(부사장)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편리한 구매 환경을 통해 고객에게 항상 최상의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쌍용차 '더 뉴 렉스턴 스포츠' 군 지휘차량 공급

연말까지 각급 부대에 700대 인도

쌍용자동차는 '더 뉴 렉스턴 스포츠' (사진)를 국군 지휘차량으로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쌍용차는 연말까지 각급 부대에 약 700대를 인도하고, 이후의 군 지휘차량 교체 계획에 따라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국군에 공급되는 더 뉴 렉스턴 스포츠에는 초고강도 쿼드프레임이 장착됐고, e-XDi220 엔진과 쌍용차 고유의 4WD(4륜구동) 시스템 4 Tronic이 조합돼 산악 지역에서도 최적화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밖에 탑승 인원을 6명으로 확대하면서 실내 이동 편의성뿐만 아니라 사이드&커튼 에어백을 포함한 6에어백 적용으로 안전성을 높였고, 등판



능력과 장애물 극복 능력도 향상됐다. 쌍용차 관계자는 "군 지휘차량에 요구되는 통신 운용을 위한 전용공급 능력 및 기동지휘소로서 역할 등 다방면에 걸친 사전 적합성 평가를 통과했다"며 "국군 전투력 향상에 기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현대차 어린이 통학차량 '스타리아 킨더' 출시

11인승·15인승 두 가지 트림

현대자동차가 어린이 전용 통학차량 '스타리아 킨더' (사진)를 출시했다. 11일 현대차에 따르면 스타리아 킨더는 스타리아 LPi 3.5 투어러 모던 기반의 11인승과 15인승 두 가지 트림(등급)으로 출시된다. 주요 탑승객인 어린이를 고려해 11인승은 어린이 신체 조건에 맞게 안전벨트를 할 수 있도록 '안전벨트 높이 조절 장치'를 기본 적용했다. 또 15인승의 경우 전 좌석을 어린이 전용 시트로 개조해 3점식 높이 조절가능 안전벨트와 안전벨트 착용 확인 시스템을 탑재한 게 특징이다. 이밖에 지능형 안전기술인 전방 충돌방지 보조와



차로 이탈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등을 비롯해 후방 보행자 안전 법규를 위한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와 후방모니터도 적용했다. 어린이 승하차 여부를 주변 차량에 알릴 수 있도록 경광등을 장착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맞춰 노후 경유차 전환사업을 지원하고자 공해가 적은 LPG 모델로 우선 출시했다는 게 현대차 관계자의 설명이다.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매할 경우 환경부의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을 통한 신차구입 보조금으로 대당 7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시 받는 지원금을 더하면 최대 13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스타리아 킨더 가격은 11인승 3478만원, 15인승 3741만원이며 보조금 적용시 2000만원대 구매가 가능하다. /박기용 기자 pboxer@

금호타이어 승용차타이어 부문 1위

한국산업 고객 만족도 조사

금호타이어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주관한 '2021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승용차타이어 부문 1위 기업에 선정됐다. 11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승용차타이어 부문에서 종합 순위 점수 83.8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승용차타이어 산업 전반에 대한 고객만족도 점수인 82.9점보다 높은 점수다. 이번 조사에서 금호타이어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회사의 제품 및 서비스, 이미지 요소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요소종합 만족도'와 '재구매 의향 평가'에서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CSI는 국내 대표 고객만족 지수로, 산업 특

성이 반영된 전반적 만족도, 요소 종합 만족도, 재이용·구매 의향을 기준으로 한다. 소비자들은 금호타이어의 승용차타이어 제품에 대해 '요철지역에서의 승차감(쿠션감)이 좋다', '코너링 시 미끄러지지 않는다', '젖은 길에서 미끄러짐이 적다', '쉽게 마모되지 않는다', '제조회사의 신뢰도가 높다' 등의 항목에 타사 대비 높은 점수를 줬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품질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양산·시장품질 등 3대 방향을 주축으로 하는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술의 명가' 단계 1위 자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엄마, 보고 싶어요
음주운전!
당신 자녀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

손해보험협회

meritz 메리츠화재, 한국손해보험, 삼성손해보험, MG손해보험, Hyeonil, 삼성화재, 현대해상, KCB손해보험, DB손해보험, S5G손해보험, AIG, 에니손해보험, NH손해보험, KOREAN, Carrot